

# 오늘부터 '사적모임 8인까지' 가능

## 21일부터 내달 3일까지 밤 11시·8인 모임 40만명 안팎 확진자 '방역 역주행' 비판

21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8명까지 사적모임 허용 인원이 상향 조정된다. 식당·카페와 같은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간은 오후 11시까지로 기존과 동일하다.

2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1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2주간 현행보다 소폭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을 시행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 18일 이 같은 내용의 거리두기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번 거리두기는 다중이용 시설의 경우 기존과 동일한 기준을 유지하되 사적모임 인원의 경우 6인에서 8인으로 소폭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단 동거가족, 아동·노인·장애인 등 기준에 사적모임 인원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 사항은 유지된다.

다중이용시설 운영은 종전과 동일한 오후 11시까지다.

대상 시설은 ▲유흥시설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평생직업교육원 ▲PC방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파티룸 ▲마사지·안마소 ▲영화관·공연장 등이다.

당일 마지막 영화 상영이나 공연은 오후 11시까지 가능하며 다음 날 오전

1시 이전 종료해야 한다. 의료법에 따라 시각장애인이나 장애인, 안마사, 안마원의 경우 기존처럼 이번 운영시간 제한을 적용받지 않는다.

학원 중에서는 '학원법'에 따른 평생직업교육원에 대해서만 오후 11시까지 운영을 허용한다. 관악기·노래·연기 학원은 칸막이 안에서 강의를 진행해야 하며, 마이크 덮개 등을 사용해야 한다.

행사·집회도 종전처럼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최대 299명이 참여할 수 있다. 300명 이상 참여하는 비정규 공연장, 스포츠대회, 축제는 관계부처 승인 필요하다. 법령 등에 근거한 공무, 기업 정기 주주총회와 같은 기업 활동은 인원 제한 없이 열되 기본 방역수칙을 지켜야 한다.

정규 종교활동은 기존처럼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수용 인원의 70% 범위 안에서 가능하며, 단 종교행사는 모임·행사 기준에 맞게 최대 299명까지 참석할 수 있다.

그 외 실내 마스크 착용, 시설 내 최소 1m 거리두기, 일부 시설 내 취식 금지,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주기적 소독·환기 등 방역수칙을 지켜야 한다.

정부가 방역 완화 카드를 꺼내 든



것은 내주 정점을 기점으로 유행이 줄어든 것으로 예상하는 만큼 소상공인 등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면서도 최근 유행 상황이 최대 62만명까지 기록적인 수치를 보이는 점을 감안해 완화폭을 최소화한 신중한 접근이라는 분석이다.

실제 정부는 일시에 방역을 전면 완화할 경우 점점 규모가 높아지거나 다시 유행 급증세로 진입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조정을 두고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달 16~22일 하루 평균 37만2000명의 신규 확진을 정점으로 23일만 떨어지는 유행이 꺾일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신규 확진자 수는 지난 16일

40만624명으로 정부 예측을 갠 뒤 17일에는 사상 최대 62만1266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지난 18일과 19일에도 하루 발생 신규 확진자는 40만6978명, 38만1454명으로 40만명대 안팎을 기록 중이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다음 주 정점에 이르지 않고 증가세가 이어질 가능성도 점쳐지는 만큼 전문가들은 정부 조치가 역주행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도 제기하고 있다.

전문가 이화여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최근의 확산세를 본다면 다음 주에도 정점이 오지는 않을 것 같다"며 "유행이 지금처럼 더 이어진다면 치료와 방역 등 방침을 똑같이 가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재환기자



### 완도소방, 건축공사장 화재 각별한 주의 당부

완도소방서(서장 윤예심)는 본격적인 건축공사가 진행되는 시기를 맞아 건축공사장 용접·용단 작업 등 화재 취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 화순소방 의용소방대, 산불 예방 캠페인 추진

화순소방서(서장 이종희) 의용소방대는 전국적으로 산불이 지속해서 발생하는 가운데 산불 예방을 위한 캠페인 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화순=박순철기자



### 순천경찰, 신학기 아동 성범죄 예방 점검 활동 전개

순천경찰서(서장 최병운)는 신학기를 맞아 순천지역 초등학교 42개교와 남녀공학 중·고등학교 18개교를 대상으로 전면적인 성범죄 예방 점검 활동을 2주간 펼쳤다.

순천=김승호기자



### 보성경찰, 신학기 어린이 교통안전 캠페인 전개

보성경찰서(서장 오임관)는 보성초등학교와 보성남초등학교 앞에서 '신학기 어린이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보성군, 보성교육지원청, 녹색어머니회 및 모범운전자회와 함께 하였다.

보성=김명순기자



### 구례경찰, 국가·자치·수사경찰 역할 추진과제 보고회 개최

구례경찰(서장 박임규)은 16일 '안전한 구례를 만들기 위해 22년 역할 추진과제인 국가·자치·수사경찰 추진 보고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구례=박진호기자



### 무등산국립공원, 해빙기 안전점검 및 구조훈련 실시

국립공원공단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이재원)는 16일 119산악구조대와 합동으로 해빙기 낙석위험구간 안전점검 및 구조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김재환기자



노란 산수유꽃 만개한 구례 반곡마을 구례군 산동면 산수유마을(반곡)에 20일 활짝핀 산수유 꽃 뒤로 지리산의 설경이 장관을 이루고 있다. (사진=구례군청 제공)

## 서울 3곳 방화혐의 20대男 '체포'

### 한 곳은 산후조리원 건물...인명피해 無

서울 중랑구 소재 상가 3곳에 연달아 불을 지르고 달아난 혐의의 20대 남성이 체포됐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중랑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를 받는 남성 A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전날 오전 8시30분경 중랑구의 한 무인점포 벽면에 불을 지르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불을 지른 상가 중 한 곳은

3~5층에 산후조리원이 있는 곳으로,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화재가 발생한 당일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19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다.

이슬비기자

## '119구급대원 문지마 폭행' 20대 남성 500만원 벌금형

### "구급대원 자존감, 근무의욕 저하시키는 행위"

발목을 다쳐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 응급실로 옮겨진 남성이 자신을 도와준 소방대원 목살을 잡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9단독 이재욱 판사는 119 구조·구급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9월 경기의 정부시 한 병원 응급실에 정착한 119구급차 안에서 소방대원을 벌 다른 이유 없이 목살을 잡고 얼굴 등을 폭행한 혐의다.

폭행을 당한 구급 대원은 발목

을 다친 A씨의 병원 이송을 담당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A씨는 정당한 사유 없이 119구급대원의 구조·구급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응급환자 이송 등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는 구급 대원들의 자존감과 근무의욕을 저하시키고 이러한 행위가 반복되거나 방치될 경우 사회 전반의 안전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며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서선욱기자

## 주차장에 혼자 있던 1세 뒤퉼 치어 숨졌는데 운전자 '무죄'

빌라 지상 주차장 바닥에 앉아있던 1세 아동을 자동차로 치어 숨지게 한 20대 운전자가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단독 노한동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7일 오후 6시 25분경 경기 수원시에 위치한 한 빌라 지상 주차장으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주차장 바닥에 앉아있는 피해아동 B(1)양을 시속 15km로 주행하던 자동차로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씨가 주차장 진입 시 차량을 최대한 감속하거나 일시 정지해 사람이 있는지 확인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고 그를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아이 혼자 주차장에 있을 거라고 운전자

가 판단해 대비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 이란 설명이다.

노 판사는 "만 1세 미만의 어린 아이가 차량이 오가는 곳에 혼자 앉아 있는 것"은 운전자가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일"이라며 "자동차 운전자가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 발생을 예견해 이에 대비해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 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의 앞은키도 당시 49.86cm(생후 12~18개월 남자의 평균 앞은키 49.856cm)보다 낮아 피해자를 보지 못했더라도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것이라 단정 지을 수 없다"면서 "차량 운전자 입장에서 주차장 진입 시 아무 것도 없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거가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이슬비기자